

● Challenge Zone

Health people

글_김연수 기자
사진_연합뉴스



2012 런던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신아람

조용한 카리스마 불굴의 승부사

168cm 신장에 57kg의 몸무게. 펜싱 에페 선수로는 큰 신장도, 좋은 체격 조건도 아니다. 게다가 신아람 선수는 이번 올림픽이 그녀 생애의 첫 출전이였다. 금메달보다 빛나고 의미 있는 '은메달'을 목에 건 그녀의 성공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



‘1초 오심’의 희생자 신아람 선수는 오히려 그 억울한 오심으로 더 단단해졌고 메달을 향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졌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그 어느 올림픽보다 값진 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번 런던 올림픽은 우리의 기억 속에 길이 남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유독 한 선수의 이름 석자가 우리의 뇌리에 박혔다. 바로 여자 펜싱 국가대표 신아람(27) 선수. 지난 7월 30일 여자 에페 개인전 4강에서 독일 하이데만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그야말로 ‘황금’같은 ‘금메달’ 도전 기회를 놓쳤다. 명백한 오심에 1시간 동안 피스트에서 내려오지 않고 눈물을 흘렸던 신아람 선수.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1초 오심’의 희생자 신아람 선수는 오히려 그 억울한 오심으로 더 단단해졌고 메달을 향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졌다. 결국, 한국 여자 펜싱 올림픽 출전 사상 단채전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거머 쥔 에페팀! 신아람 선수를 중심으로 불타오른 승부욕과 자신감이 이들을 진정한 올림픽 챔피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진정한 멘탈 승리자, 우리에게 금메달리스트

충남 금산여중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의 제안으로 펜싱을 시작한 신아람 선수. 3~4년간은 국내 대회에서 변변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불평불만 없이 힘든 훈련을 이겨냈고 견뎌냈다. 금산여고 2학년 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한체대 1학년 때 태극 마크를 달게 됐다. 신아람 선수는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실력이 올라간 것 같다”며 “펜싱을 시작할 때는 운동부 분위기가 딱딱해서 싫었는데 칼을 휘두르면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러면서 펜싱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평소 신아람 선수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조용하고 과묵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책을 읽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답했다. 내성적인 신아람 선수에게 이번 런던 올림픽은 그녀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성격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것은 바로 ‘투지와 의지’. 오심으로 얼룩진 그녀의 눈물의 1초는 그녀를 불굴의 의지를 지닌, 근성 있는 승부사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게다가 어이없는 오심의 일격을 당하고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당당한 스포츠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우리에게 감격의 메달을 안겨준 그녀에게 벅찬 감동의 박수를 보낸다.

미니인터뷰

신아람 선수 어머니 윤지희 씨 해산물 요리 즐기는 마음까지 튼튼한 효녀딸

딸이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을 때 심정이 어떠했나

아람이가 오랜 시간 준비와 노력을 많이 했다. 나한테는 아직도 아기 같다. 그저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만을 바랐다. 이번 올림픽이 아람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평소 신아람 선수는 어떤 딸인가

두말할 필요 없는 효녀다.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여 본 적이 없는 아이다.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다. 그런데 어렸을 땐 남동생이랑 놀이터에 나가 남자 아이처럼 놀았다. 운동도 좋아하고... 그럴 땐 천상 머슴아 같았다(웃음).

신 선수가 좋아하는 음식은?

꽃게탕, 해물탕, 대게 등 게와 해산물 종류를 좋아한다. 밥 생각 없어 하는 아람이에게 “게 먹으러 갈까?” 하면 “진짜?”라며 눈을 크게 뜨고 좋아한다. 평소 군것질을 하진 않는다.

신 선수만의 특별한 건강식이 있다면

특별히 챙겨 먹는 보양 음식은 없다. 선수들이 잘 먹는다는 보신류(게, 뱀 등)는 아람이가 질색을 한다(웃음). 그냥 내가 해준 삼계탕, 김치찌개, 해물탕 등 엄마표 밥상이 아람이의 건강식이다. 딸이 맛있게 잘 먹어줘 기특하다.